한국학연구 제62집 | 91~115쪽 | 2021.8.

대동아문학자대회와 일제 말 동양주의 언설*

-상호주의와 황도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곽형덕**

〈차 례〉

1. 들어가며
2.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황도주의의 충돌
3. 상호주의의 함정 : 위협받는 일본 중심주의
4.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가 남긴 것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제1회와 2회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에 나타난 동양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상호주의와 황도주의 언설을 둘러싼 충돌/갈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일본 대표와 중국 대표가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황도주의 언설을 둘러싸고 미묘하게 충돌하면서 균열이 표면화됐다. 제2회 대회에 참석한 중국 작가들은 '동양 고유의 사상', '도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중국 사이의 문화적 유사성만이 아니라 은연중에 중국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이 내세운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의 천황을 그 정점으로 받들어 모시는 상징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작가들이 내세운 동양주의 또한 황도주의 언설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한편, 대동아문학자대회에 등장하는 중국은 크게는 세 가지 세력으로 나뉜다. 일본에 협력적인 남경 국민정부, 일본에 적대적인 중경의 국민당정부와 연안의 공산당이 그것이다.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중국 작가들은 남경 화평지구에서 왔으며, 이들에게 요구된 것은 중경(국민당) 문화인 포섭이었다. 화평지구에서 참석한 중국 작가들은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일본 중심주의를 견제하고 상호주의를 내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발굴된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와 관련된 기록에서도 두드러진다. 3회 대회에서 돌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 명지대학교 일어일문과 조교수

출되는 것은 일본 중심주의의 현저한 약화이며, 이는 중국 작가들의 태도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가 더 이상 황도주의만을 단호하게 외쳐댈 수 없는 시공간 속에서 개최됐음을 알 수 있다. 제2회 대회에서 절정에 달했던 황도주의는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제3회 대회에서 눈에 띄게 약화됐다. 그런 의미에서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내세워진 동양주의는 '반서구 동양 담론'으로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지만, '문화공동체 담론'에서는 중국과 일본 작가 사이에 미묘한 충돌을 야기했다. 하지만 그 균열/노이즈는 '지배적 언설'을 부정하는 형태였다기보다는, 틈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보하는 정도로 기능했다. 균열/노이즈는 동양주의 언설의 틈새이기도 했다.

[주제어] 대동아문학자대회, 동양주의, 상호주의, 황도주의, 중경정부, 남경정부, 문화권력

1. 들어가며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에서 대동아문학자대회(大東亞文學者大會)[1]는 실체적인 접근의 대상이었다기보다는 문학자의 친일행위의 한 형태로서 다뤄졌다. 이는 임종국의 선구적인 업적인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9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71년에 오자키 호쓰키(尾崎秀樹)가 『구식민지문학의 연구(旧植民地文学の研究)』(勁草書房)[2]를 내면서 대동아문학자대회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됐지만, 이후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등에 의해 단속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대동아문학자대회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1990년대 이후 한일 양쪽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된 탈식민주의 연구나 친일문학 연구라는 흐름을 들 수 있다. 덧붙여서 대동아문학자대회가 크게는 일본, 중국, 만주, 남방 등 이른바 '대동아공영권' 내의 지역과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문학 연구자가 그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동아문학자대회와 관련된 최근

1) 제1회 대회는 1942년 11월 3일부터 일주일간 도쿄에서, 제2회 대회는 1943년 8월 25일부터 3일간 도쿄에서, 제3회 대회는 1944년 11월 12일부터 3일간 중국 난징에서 열렸다. 1회와 2회 대회 회의록은 번역 출간된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곽형덕 옮김, 소명출판, 2019)에 수록돼 있다.

2) 이 책은 『일본 근대문학의 상흔 : 구식민지 문학론』(오미정 옮김, 한신대학교출판부, 2013)으로 한국에 번역돼 나와 있다.

연구는 한국문학, 일본문학, 중국문학, 타이완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학제간 교류 속에서 실체적/심층적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3] 특히 대동아문학자대회는 일제 말에 끝났지만, 이후 이 대회에 참석했던 문학자들이 일본 제국의 패망 이후 각국의 문화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만큼 1945년 이전의 시공간 속에 봉인해 해석할 수는 없다. 대동아문학자대회는 포스트 제국의 문화권력이 어떻게 자기 변신을 꾀했는지, 혹은 일제 말의 습성을 다른 형태로 재현했는지를 파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일대 이벤트였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나온 대동아문학자대회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경향 중 하나는 대회에 참여한 문학자들의 언설 속에서 일본 제국의 프로파간다와 어긋나는 지점과 균열/노이즈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회에 참석한 백여 명의 문학자들[4]은 민족과 지역에 따라 각자 이해관계가 달랐기에 대회에 몰입/헌신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해도, 강제한 참석이 아니었기에 대부분은 대회와 일정 부분 뜻을 같이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참석자들의 몰입과 협력의 정도를 들어서 회의록의 언설에서 '균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해석은 숲이 아니라 나무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대동아문학자대회 자체가 일본 군부와 뜻을 같이하는 일본문학보국회(1942년 5월 결성) 주최였다는 점에서, 문학의 전시동원에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문학자들은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확인된다. 신지영이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일본대표로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 대표를 "중국인처럼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통역이 없다거나 은근히 피로감을 호소거나 신문보도가 틀렸다면서 불만을 표현"[5]할 수 없는 존재로 파악

---

3) 이와 관련된 연구 중 일본에서는 마쓰모토 가즈야(松本和也), 하시모토 유이치(橋本雄一)의 연구를, 한국에서는 최정옥, 신지영, 이혜진의 연구를 참조했다. 관련 논문은 인용과 참조문헌을 참조할 것. 필자 또한 졸고 「'大東亜' 談論と日本帝国の文学場－大東亜文学賞と芥川賞を中心に－」(『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014)에서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의의와, '대동아문학상', '아쿠타가와상'을 통해서 일제 말 문학장의 문제를 다뤘다.

4) 1회 대회에는 일본 대표 57명(타이완과 조선인 작가 9명 포함), 만주・몽골・중국 대표 21명, 2회 대회 규모는 일본 대표 99명(타이완과 조선인 작가 9명 포함), 만주국 대표 5명, 중화민국 대표 21명이었다. 3회 대회에는 일본대표 14명(조선인 1명), 만주・몽골・중국 대표 54명이다.

5) 신지영 「'대동아 문학자 대회'라는 문법, 그 변형과 잔여들 : 타자는 타자와 만날 수 있는가?」, 『한국문학연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56쪽. 신지영은 이 문장을 大村益夫, 「大東亜文学

해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부재'를 짚어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 지식인과의 이러한 차이는 이들이 일본대표로 참석한 조선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보다는 이광수, 유진오, 최재서, 김용제, 유치진 등이 친일과 동화의 단계를 넘어서 황민화/황도주의에 깊이 공명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중국과 조선의 작가들이 처한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대동아문학자대회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조선인 문학자는 그곳에 '존재'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광수나 유치진이 아니라, 임화나 김사량 등이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했다면 이들의 발언과 태도는 이광수나 최재서 등과는 현저히 달랐을 것이다. 3회 대회까지 회의가 거듭되는 가운데 참석은 했지만 대회 자체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중국 대표들의 경우에도 일본 제국의 전쟁 승리와 이들의 이해가 일정 부분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마쓰모토 가즈야(松本和也)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이러한 균열-차이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공평함을 결여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는 지배적 언설을 핵으로 해서 짜인 언설이, 공감을 불러온 효과 쪽이"[6] 더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평가에는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오무라 마스오가 "곤란에 부딪쳤을 때,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기에는 좋은 재료이다. 대회의 방침에 순진하게 따른 자, 편승한 자, 면종복배로 지냈던 자, 참가하지 않은 자, 인간 각각의 사는 법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이르는 일련의 문화 상황을 야기한 책임의 문제"[7]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동아문학자대회와 관련된 회의록, 기록, 에세이 등에 드러난 균열/노이즈를 강조해서 '지배적 언설'이나 포섭의 공백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필요한 것은 균열/노이즈가 무엇으로부터 발생되

者大会と朝鮮」(『社会科学討究』 34(3), 早稲田大学アジア太平洋研究, 1989)에서 인용하면서 조선인 문학자들이 중국이나 만주의 문학자들과 얼마나 다른 위치에 있었는지를 드러내려 했다.

6) 松本和也「文学(者)と思想戦：第一回大東亜文学者大会の修辞学・補遺」, 『文教大学国際学部紀要 文教大学』, 2018.7, 61쪽.

7) 오무라 마스오,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3 :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2017, 98쪽

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발생된 가장 큰 균열/노이즈가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황도주의가 충돌해서 발생된 것으로 파악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대동아문학자대회에 나타난 일제 말 일본 제국의 인종주의 정책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황도주의의 충돌을, 3장에서는 일본이 내세운 중국과의 상호주의에 드러난 함정을 중심으로 일본중심주의의 파열의 양상을, 4장에서는 최근 발굴된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패전 직전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논리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다. 특히 제3회 대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국의 악화와 함께 변화해 가는 대 중국 언설의 양상은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황도주의 충돌의 핵심이다.

2.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황도주의의 충돌

대동아문학자대회는 태평양전쟁 개전 이후 11개월 후인 1942년 11월에 개최된 만큼 영국과 미국(줄여서 이하, 영미로 표기함)의 사상과 문화는 타도해야 할 적이었다. 하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탈아입구(脱亜入歐)를 내세우며 서양의 문화와 과학을 전면적으로 수용했던 일본이었던만큼, 귀축영미(鬼畜英米)는 겉으로서만 가능했을 뿐, 영미의 문화와 과학은 이미 일본 제국주의의 피와 뼈를 이루고 있었기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감각파이며 유럽문학과 사상의 수혜를 깊이 받았던 요코미쓰 리이치가 서구의 근대가 창출한 “과학과의 투쟁”(과거의 괴로움)을 선언하고 ‘신화의 영역’(비과학, 비논리)에서 아시아의 단결을 주창[8]할 때도 이러한 모순은 완전히 불식됐다고 보기 어렵다. 군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개된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근대 이성과 합리주의를 완전히 배척할 수 없으며 그것을 토대로 서구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시라카바에서 활동했던 나가요 요시로(長与善郎) 등이었는데,

8) 곽형덕 편역,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소명출판, 2019. 58쪽.

일본이 근대 이후 서구와 맺은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겠다.[9] 서양을 배척하는 것이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일전쟁 이후 전선이 나날이 넓어지며 일본 제국은 피식민자를 제국이 수행하는 전쟁의 일원으로서 끌어들여야만 하는 난제와 마주하면서 "거친 인종주의(vulgar racism)"를 "친절한 인종주의(polite racism)"로 재편할 수밖에 없었다.[10] 하지만 이는 일본 제국으로서는 양쪽 모두 균열과 모순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난제였다. 서양의 제도와 문화를 피와 살로 받아들였지만 이를 순식간에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하는 것과, 피식민자를 온전한 제국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 전쟁에 '자발적'/'주체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양쪽 모두 모순과 균열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서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에 나타난 영미사상은 어떤 모습이고, 또 영미사상을 대체할 일본의 사상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제1회와 2회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미사상

민주주의, 제국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허무주의.

(나) 동양사상

도의(道義), 노장사상, 유가주의, 동양고전, 反－제국주의, 反자유주의, 反개인주의, 反물 질주의, 反허무주의

(다) 황도주의

왕도사상, 황도문화, 팔굉일우, 신들의 부활

(라) 대동아공영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의 문화적, 경제적 통합

---

9) 앞의 책『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49쪽.

10) 다카하시 후지타니 지음, 이경훈 옮김,『총력전 제국의 인종주의』, 푸른역사, 2018. 중일전쟁 시기까지만 해도 '선택적인 동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나,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이전까지 '황민화 정책'의 대상이 아닌 민족도 그 대상이 되면서 '친절한 인종주의'와 '포용적인 인종주의'가 전면에 내세워졌다.

배척해야 할 '(가)영미사상'의 대안으로 주로 등장하는 것은 '(나)동양사상'과 '(다)황도주의'이다. '(라)대동아공영권'은 (가)를 대체할 사상이라기보다는 1940년 제2차 고노에(近衛) 내각 성립 이후 설정된 영미의 제국주의를 막는 방파제와도 같은 정치적/경제적 공동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동양사상과 황도주의, 대동아공영권이 발화될 때 각각은 포개지면서도 충돌한다. 특히 동양사상은 일본 작가들이 중국 작가와의 문화적 친밀성을 강조할 때 등장하지만, 그때마다 양자 사이에 미묘한 충돌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에서 동양사상과 황도주의가 충돌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동양'과 관련된 언설은 서양의 제국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사상으로 사용됐다. 이는 중화민국 대표 첸다오순(錢稻孫)이 "서양 문화를 갱생의 도구로 흡수해서 이용하였고, 서양의 이른바 제국주의, 공리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동양의 도의 정신을 발양(發揚)시켜, 오늘날 동아 해방의 책임을 맡게"[11]됐다고 발언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 참가자들이 다른 지역의 참가자들에게 문화적 유사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거나, 혹은 역으로 중국인 참가자들이 일본과의 문화적 친연성을 드러내려 할 때 호출되었다. 물론 호소다 다미키(細田民樹)처럼 동양의 정신이 중국에서 찬란히 빛났다가 점차 약해져 이제는 일본에서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는 식으로 일본의 우위를 주장[12]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인 논지는 동양의 정신을 공유하는 '동양인'이 합심해서 서양 세력을 쫓아내자는 쪽이 더 강했다.

제1회 대회와 2회 대회 회의록에서 '동양'과 '황도', '천황'의 빈출 정도를 분석해보면 '동양 정신'과 '황도주의'가 충돌하는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회 대회에서 '동양'은 97회 '황도'는 8회, '천황'은 15회, 2회 대회에서 '동양'은 59회, '황도'는 32회, '천황'은 5회 등장한다. 이를 보더라도 제1회 대회는 '황도'나 '천황'보다는 '동양'이 훨씬 더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2회 대회에서는 여전히 '동양'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황도'

11) 앞의 책,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21쪽.
12) 앞의 책,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70~71쪽.

를 언급하는 비율이 1회 대회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것이 확인된다. 이는 1회 대회에서는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동아 정신의 수립"과 "대동아정신의 강화 보급"을 내세웠던 것에 비해, 2회 대회에서는 "① 결전정신 앙양", "② 미영문화 격멸", "③ 공영권 문화의 확립", "④ 성전 완수를 위해 선행할 문학적 창조안", "⑤ 대동아 이념의 확립과 실천 방법" 등과 같이 영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문학자들의 사상전을 주장했던 것을 봐도 명확하다.[13] 2회 대회에서는 같은 '동양'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친밀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이 우위를 점해서 대동아공영권을 이끌어가야 했기에 '황도주의'를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제2회 대회에 참석한 중국 작가들이 '동양 고유의 사상', '도의 정신'을 강조한 것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문화적 유사성만이 아니라 은연중에 중국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 화중(華中) 대표로 참석한 첸랴오시(陳廖士)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 대동아전쟁은 유사 이래 미증유의 정전征戰이며 대동아전쟁 필승의 신념은 아주 명백하게 동아민족 심리 위에 깊이 각인돼 있습니다. 우리들이 빛나는 필승의 목적을 달성해 낸다는 것은 추호의 의심도 없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인식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동양 고유의 사상**을 인식하고 **동양 고유의 정신**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즉 이는 대동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대동아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커다란 두 가지 요소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 고유의 사상**은 즉 왕도인 **동양 고유의 정신**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도의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과 이 사상은 일본, 만주, 지나 각국이 서로 갖고 있는 정신이며 또한 이것을 서로 크게 발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략) 이번 대회는 문학자가 대동아전쟁에 필승을 증명하는 것으로 문학자 대회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동양 고유의 왕도사상**과 그 **도의적 정신**에 의한 것입니

13) 이혜진, 「문인 동원의 병참학 : 아시아 · 태평양전쟁 하의 '대동아문학자대회'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0-3, 2013, 부록 참조.

다.[14] (밑줄 = 곽형덕, 이하 동)

첸랴오시는 대동아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동양 고유의 사상'과 '동양 고유의 정신'을 인식/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첸랴오시가 황도주의라는 말을 애써 쓰지 않으며 동양의 사상과 정신을 내세운 것은 주목을 요한다. 특히 조선과 타이완, 만주의 참가자들이 과할 정도로 황도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화중 대표들의 발언은 돌출적이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 상태인 조선과 타이완, 만주의 참가자들과 달리, 중국 대표들의 경우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본의 우위와 주도권을 상징하는 황도주의 대신에 중국이 우위를 내세울 수 있는 동양의 사상과 정신을 내세웠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동아문학자대회를 지배하고 있던 황도주의의 시공간으로부터 이탈해 중화의 시공간을 환기시켜 굴종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보려 했던 시도였던 셈이다. 하지만 중국 대표의 동양주의(東洋主義)[15] 언설은 바로 일본 작가인 사토 하루오(佐藤春夫)의 황도주의와 충돌한다.

저는 매일매일 말하고 있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말이어서 문학자에게 알맞지 않은 말이며 산문적이며 겉만 거창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동아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말이며 공영권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말입니다. 확실히 이러한 표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문학자만은 이러한 말보다도 보다 적절한 말이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평상시부터 황도문화권(皇道文化圈)이라는 말을 이 말과 바꾸면

14) 앞의 책,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140~141쪽.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은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에서 인용하며, 이후 쪽수만 표시한다.

15) 중일전쟁 이후 동양주의 언설은 반서양의 기조 속에서 기존과는 다른 자장 속에서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재탄생했다. 박수연은 일제 말 동양주의가 "30년대 말로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반서구적 동양론이 동북아공동체론에서 대동아공영론으로 확장되면서 거의 모든 시국적 담론을 형성 흡수"(박수연, 「친일과 배타적 동양주의」. 『한국문학연구』 3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193쪽)했다고 하면서, 이를 "굴절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칭했다. 그렇기에 일제 말 동양주의는 배타적인 '반서구 동양 담론'을 지렛대로 삼아 '문화공동체 담론'을 더욱 강화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단결을 주장했다.

> 어떻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만약 찬성해 주신다면 문학자 사이에서라도 황도문화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황도정신이란 무엇이인가 하는 양해를 얻고 싶으므로 이 제목(「황도정신의 삼투-우아한 국가의 대조화調和」)을 고른 것입니다. (중략) 그래서 대동아전쟁은 영미의 세계제패에 반해 우리들은 이상을 통해 나아가고 있으므로 되도록 가까운 시일에,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제군들에게, 황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적어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공영권이라고 하는 모두가 모여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도의를 통해 결속되는 문화권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말이 아니라, 더 한발 나아가서 황도문화권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53-156쪽)

사토 하루오는 이 발언에서 '동양'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의 인종/민족 정책은 '겉 = 대동아주의, 동양평화, 식민지해방'과 '속 = 황도주의, 일본중심, 이민족 전시동원'으로 이뤄져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토 하루오는 '겉'을 위험한 것으로 보고 '속'만을 집요할 정도로 강조했다. 회의장에서 대동아공영권과 동양이 강조될수록 일본은 완전한 우위에 서 있다기보다 협력을 구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렇기에 사토는 일본의 온전한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황도문화권으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용어를 대체시키려 한다. 대동아공영권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는 만주국의 오족협화(五族協和)와 마찬가지로 민족/인종간의 '공영'을 강조했기에, 무조건적으로 일본의 우위만을 주장할 수 없는 공영/공존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동아문학자대회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상생과 협력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것으로 타민족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그것이 잘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일본의 우위를 강조하는 황도주의나 팔굉일우를 내세웠다.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천황에게 바치는 것"을 강조했던 이광수나, "황도문학 수립"을 주창한 타이완 작가 줘진포(周金波) 등에게는 황도주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지만, 중국 우위의 동양정신을 고집스러울 정도로 내세우는 중국 작가에게는 황도주의를 앞에 내

세움으로써 누가 회의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중국 작가들의 협력이 절실했던 일본으로서는 황도주의만을 고집할 수 없었으며, 그것은 상호주의의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동양정신을 강조하면 할수록 수천 년에 걸친 중국 주도의 중화사상의 늪에 빠져들어 일본 중심주의는 흔들리게 되며, 그렇다 해서 황도주의만을 내세우면 대동아공영권의 표면인 '친절한 인종주의'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는 대동아문학자대회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던 딜레마였다. 하지만 일본이 내세운 것은 역시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의 천황을 그 정점으로 받들어 모시는 상징 공간"[16]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작가들이 내세운 동양주의 또한 황도주의 언설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그런 언설 공간에서 중국 작가들이 일본의 황도주의에 찬성하면서도 '동양의 전통'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일본의 개념을 전유해 중국의 자부심을 은근히 드러냈던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3. 상호주의의 함정 : 위협받는 일본 중심주의

서양에 맞선 아시아의 해방자를 자임했던 일본 제국에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은 만주국 건국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 침략이었다. 그렇기에 일본 제국은 이를 '사변(事變)'으로 칭해 권익의 침해에 대응한 정당한 군사 행동으로 위치 지었다. 물론 이는 1928년에 일본도 체결한 '부전조약(不戰條約)/켈로그-브리앙 조약)'과 국제연맹 규약의 틈새를 노린 것이었다. 하지만 '사변'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이면에는 이르게는 '만주사변'(1931)과 '상하이사변'(1932), 그리고 '중일전쟁'(1937~1945) 이후 적(敵)이어서는 안 되는 '적'이었던 중국 표상이라는 난제가 있었다. 고미부치 노리쓰구(五味渕典嗣)는 중일전쟁 시기 중국 표상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6) 松本和也, 「第一回大東亜文学者大会の修辞学－大東亜共栄圏言説の亀裂」, 『神奈川大学アジア・レビュー』 6, 神奈川大学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18.3, 10쪽.

> 이전에 나는 일본 제국은 중일전쟁에서 '적'의 얼굴을 어떻게 표상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곤란함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동아의 영원한 안정", "동아신질서의 건설"이 전쟁목적이므로, 중국 사람들이 총체로서의 일본 제국의 '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군대와 정보 당국은 전장에서 어떠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중국 전선에서 어떠한 만행이 벌어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반복해서 "우리 교전의 대상은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항일 정권 및 그 군대, 비적으로 결코 지나의 양민은 아니다"(支那派遣軍總司令部「派遣軍将兵に告ぐ」1940년 4월 29일) (중략) 본질적으로는 '양민'인 중국 사람들로부터 사악한 사상을 제거해 '각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그녀들의 '자각'을 통해 그것이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이다.[17]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교전을 벌인 대상은 아시아의 동반자인 중국이나 중국인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 등의 선동에 의해 항일을 하는 세력으로 규정된다. 일본 군부는 중국(인)을 선량한 중국(인)과 선동당한 중국(인)으로 나눔으로써 중국(인) 전체를 적으로 규정했을 때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려 했다. 아시아의 해방자가 같은 아시아인 중국을 '부전조약'을 어겨가며 침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회피해야만 하는 모순이었다.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가했던 나가요 요시로(長與善郎) 또한 태평양전쟁 이후 "지금에서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나사변이라는 것은 인과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애처로운 형제간의 싸움이라는 모순된 감정과, 언제 끝날지 모를 추이를 알 수 없는 불명료함, 대립구도가 직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국민의 사기도 충분히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18]이라고 했던 것도, 사후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중국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중경 국민당정부에 대한 견

---

17) 고미부치 노리쓰구, 「텍스트라는 이름의 전장(戰場) – 김사량 작 「향수」의 언어 전략」, 『지구적세계문학』 9호, 곽형덕 옮김, 2017봄호, 485쪽.

18) 長與善郎, 「今時戦争とその文化的意義」, 『新潮』, 1942.2. 앞의 논문 「文学(者)と思想戦 : 第一回大東亜文学者大会の修辞学・補遺」 52쪽, 재인용.

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남경 국민정부(화평지구, 왕징웨이 정권)에서 많은 문학자를 초청한다. 자신들의 영향력 밖에 있는 연안의 공산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대동아문학자대회의 구성이나 의제에도 나타나있듯이 '북방진호'는 가장 큰 목표였고 그 다음이 동남아+남양 수호였다.[19] 그런 상황에서 중경(국민당)의 문화인 포섭은 절실한 과제 중 하나였다.[20] 제1회 대회에 경성에서 참석한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는 "신 중국의 분들과, 일본의 작가가 함께 일어나서 오지에 있는 과거의 벗들에게 호소한다면 그 영향은 실로 클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로 그 땅에 있는 적국 문인은 처음부터 확실한 의식을 갖고 오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단순히 숨 가쁜 흐름에 휩쓸려, 어느새 중경까지 간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95쪽)라고 하면서 중경의 중국 작가를 화평지구 작가를 통해 포섭하는 청향공작(淸鄕工作)을 제안한다. 하시모토 유이치는 "'대동아'에 얽히지 않지만, 그렇기에 얽히게 해야만 한다는 제국 일본이 상정한 '대동아' 내부의 경계, 그리하여 '대동아'의 한계를 가리키는 문제적 공간. 그곳이 중경"[21]이라고 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시공간의 바깥에 존재하는 중경이 지니는 의미를 날카롭게 포착한다. 일본 대표에게 중경은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지만, 중국 대표에게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협상카드인 동시에, 윤함구 바깥이었던 것이다.

---

19) 대회의 1순위는 북방진호를 담당하는 만주국+중화민국+국민당(중경)이었고, 2순위는 태평양 방위와 관련된 동남아+남양이었다. 조선과 대만의 문학자들은 누구보다 열렬히 황도주의를 내세웠지만 이들의 자리는 말석일 수밖에 없었다.

20) 이와 관련해서 하시모토 류이치는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류롱광(柳龍光)이 중경의 지식인들에게 호소하는 글을 찾아내 분석했다. 류롱광은 중국어로 쓴 「중경방면의 문인들의 조속한 각성을 촉구한다」(『黑龍江日報』, 1943.8.31.)에서 중경의 문인들이 반일을 거두고 일본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글은 橋本雄一 「「大東亜」の時間、ネイティヴの時間 : 第二回大東亜文学者大会にある対重慶ディスクール」(『東京外国語大学論集』 (85), 2012, 19쪽)에 일본어로 번역돼 있다.

21) 앞의 논문 「「大東亜」の時間、ネイティヴの時間 : 第二回大東亜文学者大会にある対重慶ディスクール」, 3쪽. 하시모토 유이치는 같은 논문에서 "'구미', '영미사상'이 "우리나라의 문화"="중국 문화"를 침범하고 배척했다, 고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가한 중국인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 문화(전통문화)를 애석하게 생각하는 의식을 발견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것일까. 중국 대륙의 동포로서,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한 지점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감정이 엿보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까."(16쪽)라고 하면서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중국 작가들의 내면의 결을 세심하게 들여다본다.

한편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중경의 문화인만이 아니라, 일본에 비협력적인 남경/화평지구의 문화인 또한 '소탕'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가타오카 뎃페(片岡鉄平)[22]는 「공생과 협력의 틈새－"반동대가 소탕"」이라는 발언에서 루쉰의 동생 저우쭤런(周作人)을 '반동대가'라고 저격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23]

> 그 적의 하나인데 특히 제가 방금 문제로 삼은 화평지구(和平地區)에 있는 반동적 노대가(老大家)입니다. 평화지구 내에 있으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이상이나 정열을, 혹은 문학 활동에 대립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유력한 문학자적 존재입니다. (중략) 특히 그러한 노대가는 세상의 속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을 민중이나 지식층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그의 과거의 문학적 공적을 반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는 중화 대표 제군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문학 활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존재에 대한 가열찬 전쟁을 벌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전쟁이 오늘날 바로 개시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그러한 투쟁에 협력해서 동원에 응해서 결의할 것을 명언합니다. (238-240쪽)

일본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던 화평지구 안에 있던 저우쭤런의 대회 불참은 일본 작가들에게는 상당히 곤혼스러운 사태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가타오카는 "공생과 협력의 틈새"를 파고든 저우쭤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회에 참석한 중국 문인들에게 "가열찬 전쟁"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일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화평지구에서 왔지만, 중경과 연안이라고 하는 일본의 영향력 밖에 있는 중국이 있었기에 조선이나 타이완 참가자들처럼 일본 작가들보다 더 소리 높여 황도주의를 외칠 필요는 없었다. 대신 이들은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일

22) 신감각파였다가 전일본무산자예술연맹(NAPF)에서 활동했으며, 전향한 이후 1938년 종군 펜부대의 일원으로 중국 대륙에서 국책활동을 벌였다.

23) 오무라 마스오에 따르면 저우쩌런은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참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오무라 마스오 「대동아 문학자대회에 참가한 문학자, 하지 않았던 문학자」,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2017, 86쪽.

본 중심주의를 견제하고 상호주의를 내세웠다. 타이완 타이베이(臺北) 출신으로 화베이 대표로 제1차, 제2차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장워진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 일국의 민족정신, 국민기질, 또는 인정, 풍속, 습관 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나 문학으로부터 시작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문학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어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대동아에서 각 민족이 앞으로 영구히 서로 결속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선 이미 논의를 할 시기는 지났으며 이제는 바야흐로 실행을 해야 할 시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자는 이웃 나라의 문예를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국에 소개하여 자국 국민에게 접촉시키는 것이 당면한 초미의 급무(急務)라 생각합니다. (72쪽)

장워진의 상호주의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 발언 이후 타이완 대표로 참석한 일본 작가 니시카와 미쓰루(西川滿)의 발언을 살펴보자.

> 장황한 예는 생략합니다만, 우리들은 오랜 기간 체험으로 대동아공영권의 모든 민족을 일본 민족과 일체화해서 대동아전쟁에 협력시켜, 이를 바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본어를 보급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급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중략) 일본어를 통한 민족과 민족 간의 융합을 제창하는 바입니다.(85-86쪽)

1회 대회에서 나온 장워진과 니시카와 미쓰루의 발언은 상호주의와 일본 중심주의의 충돌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의 공식 언어가 일본어였고, 중국어는 일본어로 통역됐지만 일본어는 중국어로 통역되지 않는 일방적인 회의 진행의 형식을 놓고 보더라도 장워진의 발언은 일본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기에 충분했다고 하겠다. 상대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나 문학으로부터 시작해 들어가야"한다는 것은, 일본 작가 또한 타 민족의 언어와 문학을 배워야 한다는 정론이었으며, 일본이 내세운 대동아공영권 논리의 외피였다. 그렇기에 중국어권 작가들이 상호주의

를 내세울 때 일본 작가들은 이를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못 하고, 발언의 모드를 일본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황도주의로 전환시켰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일본 작가들과 중국 작가들이 내세운 동양 언설의 착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술했던 것처럼 일본 작가들 또한 "동양은 하나다"라고 외치며 동양의 고전과 동양의 정신을 내세우며 상호주의를 언급했지만, 그것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언설이었으며 그 내핵에는 황도주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니시카와 미쓰루가 "모든 민족을 일본 민족과 일체화해서 대동아전쟁에 협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 작가들이 내세운 대동아공영권과 동양주의 언설의 착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4.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가 남긴 것

중국의 일본문학 연구자 친강(秦剛)이 일제 말 상하이에서 발행됐던 일본어 잡지 『대륙(大陸)』(대륙신보사(大陸新報社) 발행)[24]을 베이징에 있는 중국국가도서관에서 2017년에 발굴하면서, 그 동안 피상적인 정보만이 알려졌던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실체에 부분적으로나마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륙』은 "대동아전쟁 문화선전의 최전선"[25]이었던 상하이에서 발행되면서, 대륙에서 이뤄진 일본 문화인들의 사상전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였다. 친강의 발견은 2018년에 『와세다문학(早稲田文学)』에 특집 '전시하 상하이의 일본어 종합잡지 『대륙』 재발견'으로 꾸려지게 되면서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 의제의 일부를 이 대회에 참석했던 일본 작가 도요지마 요시오(豊島与志雄)와 이케다 가쓰미(池田克巳)의 참관기를 통해 읽을 수 있게 됐다. 두 작가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 선언」

24) 『대륙』은 1944년 10월에 창간호를 낸 이후 1945년 7,8월 합병호(제2권 7호)까지 합계 총9권을 끝으로 폐간됐다. 1944년부터 1946년까지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소설가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 또한 대륙신보사와 관련을 맺고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했다.

25) 秦剛, 「戦時末期の上海で発行された『大陸』－歴史に埋もれた〈外地〉の日本語総合誌」, 『早稲田文学(特集 戦時下上海の日本語総合雑誌 『大陸』再発見)』, 早稲田文学会, 2018, 4쪽.

을 살펴보자.

우리는 이번 중화민국 수도 난징에서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를 연다. 우리의 책임을 깊이 느끼며 대동아전쟁 완수, 대동아문화 확립의 결의를 굳게 다지며 다음 3개조를 선언하는 바이다.

一, 우리는 대동아공영권 내의 각 민족의 문화를 드높이고 또한 진정한 큰 조화를 달성하는데 공헌할 것을 기약한다.

二, 우리는 대동아공영권 내의 각 민족의 탁월한 정신을 응집해 상호 보익(補益)으로 대동아건설의 공동목표를 향해 만진할 것을 기약한다.

三, 대동아공영권 내 각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대동아 민족정신의 앙양을 기약한다

민국 33년 11월 14일[26)]

제3회 대회의 「선언문」에는 1회 및 2회 대회와 크게 변별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 째는, 일본중심주의의 약화를 들 수 있다. 3회 대회 「선언문」에는 일본의 무조건적인 우위를 드러내는 언설 대신에 "상호 보익(補益)"을 내세워 대동아공영권의 표피라 할 수 있는 공영/공존이 강조돼 있다. 제3회 대회 「선언문」에서는 제1회 대회 「선언」에서 요코미쓰 리이치가 "우리들 아시아의 전 문학자, 일본을 선진(先陣)으로 삼아, 생사를 하나로 하여 위대한 날을 동양에 불러오기 위해 힘을 다하여, 위와 같이 선언하노라"(115쪽)라고 했던 것과 같은 패기와 자신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제2회 대회 「선언」에서 히노 아시헤가 "휼언(譎言)의 흉기를 회포(懷抱)하여 동아를 오탁(汚濁) 침해하려는 적 영미를 패멸시켜 그 짐승같은 정신을 구축하고 동양재건을 기하려는 것은 우리들 공동의 비원이노라. 우리들 전 동양의 문학자는 여기에서 대동아전쟁의 승리와 완수를 붓과 검을 몸에 지니고 참여하는 전사"(330쪽)라고 했던 것과 같은 영미를 향한 적개심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26) 大陸編輯部, 「第三回大東亜文学者大会」, 『早稲田文学 (特集 戦時下上海の日本語総合雑誌 『大陸』 再発見)』, 早稲田文学会, 2018, 112쪽.

대동아를 견인해 간다고 하는 패기는 물론이고, 영미와의 전쟁에서 필승을 향한 의지가 결여된 제3회 대회 「선언문」이 나온 배경은 역시 패전의 기운이 드리워져 있던 1944년 말 상황을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특히 일본은 마리아나해전(1944.6.19.-20.)에서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게 되었던 만큼 전세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일본이 완전히 수세에 몰린 이후에 개최된 3회 대회의 「선언문」에서 '패기'와 '의지'가 결여된 것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는, 「선언문」에 기록된 연호가 천황의 연호를 쓴 1-2회 대회와 달리 3회 대회는 중화민국의 연호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1회 대회는 "쇼와(昭和) 17년 11월 5일 대동아문학자대회"로, 2회 대회는 "쇼와(昭和) 18년 8월 27일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로 선언문을 끝맺었던 것에 비해 3회 대회는 "민국 33년 11월 14일"로 마무리됐다. 1,2회 대회가 일본 제국의 시공간 속에 대동아문학자대회가 개최됐음을 알렸다고 한다면, 3회 대회는 중국 난징의 시공간 속에 대동아문학자대회가 열렸음을 각인했다고 할 수 있다. 연호를 다르게 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론은 가능할 것이다. 패전의 기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난징에서 대회가 개최되면서 일본 대표들이 더 이상 일본중심주의를 고집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일본이 영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난징에서 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해도 일본 대표들은 '쇼와'라는 연호를 주장했을 것이라는 추론 또한 가능하다.

실제로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는 미군의 B29가 난징 상공에서 폭음을 울리는 긴박한 정세 속에서 개최됐다. 이는 대회에 참석한 이케다 가쓰미의 참관기에서 확인된다. 이케다는 "대회 첫째 날에는, 또한 회의 도중에 경보가 울렸는데, 회의는 조용히 순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다. 공습하의 문학자대회라고 할 수 있다"[27]라고 대회의 의의를 담담히 썼다. 그런 상황 속에서 회의를 응시하는 이케다의 눈은 중국인 작가들의 달라진 '태도'로 쏠린다.

27) 池田克巳, 「南京大会三日間」, 『早稲田文学 (特集 戦時下上海の日本語総合雑誌『大陸』再発見)』, 早稲田文学会, 2018. 115쪽.

대표들이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나가요 요시로 씨는 문학자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한 후 "여기에 모인 중국인의 현재 기분을 살피는 것은 몹시 큰일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사실, 나는 상하이에 와서 일본이 최근 올린 대전과가 중국인에게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왔을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예상과 다른 것인지를 눈치 채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해 보면 중국인은 오래도록 영미에게 두려운 일을 당해 와서, 일본 또한 믿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처럼 슬픈 민족적 모순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만 한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중국인 대표인 자오란(趙然)은 "방금 전에 나가요 씨가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국인이 최근 일본이 올린 전과를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본디 중국인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정에 내비치지 않는 민족이라서, 이번에 올린 대전과에 대해서도 가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으며 마음깊이 남방 전선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저 표정에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해서 회의장에 미소를 보냈다.[28]

이 기록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중국인 작가들의 시큰둥한 태도이다. 당시의 검열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의 대전과(大戰果)"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일본 대표나 중국 대표 모두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대가 일본 제국이 주도하던 대동아문학자대회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눈에 띄게 달라진 중국 작가들의 '무표정'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 작가 자오란이 민족성을 핑계로 내세운 '무표정'은 일본 제국의 패망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황도주의를 내세운 대동아문학자대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음을 증좌였던 셈이다. 일본문학보국회의 이사였으며 1-3회까지 대동아문학자대회에 모두 참석했을 만큼 영향력이 컸던 나가요 요시로의 눈에 중국 작가들의 '무표정'은 무언가가 크게 변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 보였을 것이다. 조금 더 급진적인 추론이 허락된다면, 전국의 악화 속에서 일본 작가들은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그 이전의 방식대로 회의를 이

28) 앞의 글, 「南京大会三日間」, 116쪽.

끌어 나갈 수 없었으며, 일본 중심주의/황도주의 또한 상호주의 언설에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도요지마 요시오(豊島与志雄)[29]가 남긴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 기록 「동아문화의 부흥과 창조(東亜文化の復興と創造)」를 보더라도 1회 대회나 2회 대회에서와 같은 구체성/진취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요지마는 쑨원(孫文)이 고베(神戸)에서 "앞으로 일본이 세계문화에서 서양 패도(覇道)의 개가 될 것인지 혹은 동양왕도의 아성(牙城)이 될 것인지 그것은 일본 국민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이다"[30]라고 했던 연설을 인용한 후, 일본이 동양왕도의 아성을 지키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서 동양의 일체화를 외쳤다. 이어서 도요지마가 주장한 것은 대동아문예원을 설립해서 각 민족의 문화를 교류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였다. 2회 대회까지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동양주의 언설이 회의의 많은 내용을 차지하면 황도주의를 내세워 주도권을 일본 쪽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3회 대회는 일본의 치적을 잠시 내세운 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상호주의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3회 대회가 일본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가까스로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와세다문학(早稲田文学)』 특집호 '전시하 상하이의 일본어 종합잡지 『대륙』 재발견'에 실린 대동아문학자대회 관련 기록은 제한적인 만큼 이케다 가쓰미와 도요지마 요시오의 기록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 여전히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전문은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의 기록에서도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는 더 이상 황도주의만을 단호하게 외쳐댈 수 없는 시공간 속에서 개최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2회 대회에서 절정에 달했던 황도주의는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제3회 대회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 했다는 사실이다.

---

29) 도요시마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기쿠치 간 등과 함께 제3차 신사조를 간행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17년에는 『레미제라블』을 번역해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큰 돈을 벌었다. 1940년에는 중국을, 1942년에는 타이완을 방문했다.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는 영미적 어감을 동양적 어감으로 바꾸는 문학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 豊島与志雄 「第三回大東亜文学者大会」, 『早稲田文学 (特集 戦時下上海の日本語総合雑誌 『大陸』再発見)』, 早稲田文学会, 2018. 113쪽.

이는 일본이 내세운 대동아공영권의 외피가 외지인을 포섭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영향력이 컸을 때뿐이었고, 전황이 악화되자 포섭의 논리는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었음을 잘 보여준다.

5. 나가며

본고는 제1회와 2회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에 나타난 동양주의 언설을 둘러싼 충돌/갈등에 초점을 맞춰서, 상호주의와 황도주의 언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전술했던 것처럼 일제 말 동양주의 언설은 배타적인 '반서구 동양 담론'과 같은 동양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문화공동체 담론' 양쪽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도 동양주의는 서양에 맞서는 동양 작가들의 연대를 내세웠는데 이는 양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주의는 동북아만 놓고 봤을 때, 청조 몰락 이전까지 중국 문화의 압도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에 일본의 주도권만을 주장할 수만은 없었다. 그렇기에 대동아문학자대회 내내 중국 작가들은 동양주의를 내세워서 일본과의 문화적 친연성만이 아니라 중국문화의 자부심을 드러내려 했고, 일본 작가들은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수단으로 이를 내세우면서도 황도주의를 앞세워 일본 중심주의를 확고하게 하려 했다.

본고는 동양주의 언설의 충돌/갈등의 양상을 2, 3,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2장에서는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황도주의가 충돌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배척의 대상이었던 '영미사상'과 대척되는 '동양사상'과 '황도주의' 언설이 2회 대회에서 충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회 대회에서는 같은 '동양'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친밀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이 우위를 점해서 대동아공영권을 이끌어가야 했기에 '황도주의'를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제2회 대회에 참석한 중국 작가들이 '동양 고유의 사상', '도의 정신'을 강조한 것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문화적 유사성만이 아니라

은연중에 중국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이 내세운 것은 역시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의 천황을 그 정점으로 받들어 모시는 상징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작가들이 내세운 동양주의 또한 황도주의 언설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3장에서는 대동아문학자대회에 나타난 중국 표상과 중국 작가들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동아문학자대회에 등장하는 중국은 크게는 두 세력으로 나눠진다. 일본에 협력적인 남경 국민정부, 중국에 적대적인 중경 국민당 정부와 연안의 공산당이 그것이다.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중국 작가들은 남경 화평지구에서 왔으며, 이들에게 요구된 것은 중경(국민당) 문화인 포섭이었다. 하지만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일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화평지구에서 왔지만, 중경과 연안이라고 하는 일본의 영향력 밖에 있는 중국이 있었기에 조선이나 타이완 참가자들처럼 일본 작가들보다 더 소리 높여 황도주의를 외칠 필요는 없었다. 대신 이들은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일본 중심주의를 견제하고 상호주의를 내세웠다.

4장에서는 최근 발굴된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와 관련된 기록을 중심으로 황도주의 언설이 상호주의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3회 대회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일본 중심주의의 현저한 약화이며, 이는 중국 작가들의 태도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가 더 이상 황도주의만을 단호하게 외쳐댈 수 없는 시공간 속에서 개최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2회 대회에서 절정에 달했던 황도주의는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제3회 대회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 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내세워진 동양주의는 ‘반서구 동양 담론’으로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지만, ‘문화공동체 담론’에서는 중국과 일본 작가 사이에 미묘한 충돌을 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균열/노이즈는 ‘지배적 언설’을 부정하는 형태였다기보다는, 틈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보하는 정도로 기능했다. 균열/노이즈는 동양주의 언설의 틈새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곽형덕 편역,『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소명출판, 2019.

다카하시 후지타니 지음, 이경훈 옮김,『총력전 제국의 인종주의』, 푸른역사, 2018.

오무라 마스오,『오무라 마스오 저작집3 : 식민주의와 문학』, 소명출판, 2017.

오자키 호쓰키 지음, 오미정 옮김,『일본 근대문학의 상흔 : 구식민지 문학론』, 한신대학교출판부, 2013.

2. 논문

고미부치 노리쓰구,「텍스트라는 이름의 전장(戰場) – 김사량 작「향수」의 언어 전략」,『지구적세계문학』9호 2017봄호.

박수연,「친일과 배타적 동양주의」.『한국문학연구』3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신지영,「'대동아 문학자 대회'라는 문법, 그 변형과 잔여들 : 타자는 타자와 만날 수 있는가?」,『한국문학연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이혜진,「문인 동원의 병참학 : 아시아・태평양전쟁 하의 '대동아문학자대회'를 중심으로」,『아태연구』20-3, 2013,

橋本雄一,「「大東亜」の時間、ネイティヴの時間 : 第二回大東亜文学者大会にある対重慶ディスクール」(『東京外国語大学論集』(85), 2012.

大村益夫,「大東亜文学者大会と朝鮮」(『社会科学討究』34(3), 早稲田大学アジア太平洋研究, 1989.

秦剛,「戦時末期の上海で発行された『大陸』– 歴史に埋もれた<外地>の日本語総合誌」,『早稲田文学 (特集 戦時下上海の日本語総合雑誌『大陸』再発見)』, 早稲田文学会, 2018.

豊島与志雄,「第三回大東亜文学者大会」,『早稲田文学 (特集 戦時下上海の日本語総合雑誌『大陸』再発見)』, 早稲田文学会, 2018.

松本和也「第一回大東亜文学者大会の修辞学 – 大東亜共栄圏言説の亀裂」,『神奈川大学アジア・レビュー』6, 神奈川大学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18.

松本和也,「文学(者)と思想戦 : 第一回大東亜文学者大会の修辞学・補遺」,『文教大学国際学部紀要 文教大学』, 2018.7

松本和也,「第二回大東亜文学者大会・決戦会議 : 太平洋戦争末期の文学者」,『神奈川大学アジア・レビュー : アジア研究センター年報』6, 神奈川大学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19.

大東亜文学者大会と日帝末の東洋主義言説

－相互主義と皇道主義の衝突を中心に－

郭炯德*

本稿は第一回と第二回大東亜文学者大会の議事録に表れた東洋主義に焦点を当て、相互主義と皇道主義言説の衝突/葛藤を分析した。特に大東亜共栄圏の論理と皇道主義言説が衝突することが確認できる。第二回大会に参加した中国の作家たちは「東洋固有の思想」や「道義の精神」を強調しながら、日本と中国の間の文化的類似性を認めながらも、ひそかに中国文化の優秀性を主張した。しかし、日本が打ち出した大東亜共栄圏は「日本の天皇をその頂点に奉る象徴空間」だったので日本の作家たちが主張した東洋注意も、結局は皇道主義に含まれる。一方、大東亜文学者大会に登場する中国は大きくは三つの勢力に分かれる。日本に協力的な南京の国民政府と日本に敵対的な重慶の国民党政府や延安の共産党がそれだ。大東亜文学者大会に参加した中国の作家たちには重慶(国民党)の文化人を包摂するよう要求された。しかし和平地球から参加した中国の作家たちは、大会における日本の優位を認めながらも、強引な日本中心主義を相互主義で牽制しようとした。これは、最近、発掘された第3回大東亜文学者大会と関連する記録からも確認できる。3回大会で際立つのは、日本中心主義の著しい弱体化であり、これは中国の作家たちの態度の変化から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もはや皇道主義だけを叫ぶことができない時間の中で3回大会は開催されたことになる。3回大会で確認できるのは、日本の敗戦が近づくにつれて、第2回大会で頂点に達した皇道主義の言説が機能しなくなったことである。3回に亘る大東亜文学者大会における東洋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Myongji University in Seoul

主義とは「反西洋の東洋主義」としては機能したものの、「文化共同体の言説」としては東北アジアの作家たちの間で微妙な衝突を引き起こした。しかし、その亀裂/ノイズは「支配的言説」を否定するほどの力というよりは、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自尊心をひそかに確保するほどのものでしかなかった。亀裂/ノイズは大東亜文学者大会における東洋注意言説の隙間でもあった。

キーワード：大東亜文学者大会、東洋主義、相互主義、黄道主義、重慶政府、南京政府、 文化権力

논문투고일 : 2021년 7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31일